

“대목장사 어쩌나”… AI 덮친 전통시장

광주 말바우시장·담양시장 2곳서 바이러스 검출

광주시·전남도, 판매소 2주간 폐쇄·시장 일제 방역

강진·나주의 오리농장에 이어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과 담양군 담양시장 등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민족 대이동을 앞둔 추석 연휴를 앞두고 AI가 확산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해당 가금류 판매소에 대해 2주간 임시 폐쇄, 전통시장 일제 긴급방역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담양 담양시장 및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내 가금류 판매소 2곳에서 AI 바이러스(H5N8형)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AI 바이러스는 지난 3월부터 AI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상시 예방 과정에서 확인됐다.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16일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고 19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가금류 판매소 2곳을 19일부터 2주간 폐쇄 조치했다. 생오리 30여수도 살처분을 완료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8일 강진군 종오리농장 및 나주시 육용오리농장 2곳에서 지자체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AI 의심 오리(의사환축)가 고병원성 AI(H5N8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2개 오리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4300수(강진 6300수·나주 8000수)는 AI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10일 이후 3개월 만이다. AI 발생은 전남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올 들어 무안, 나주, 구례, 강진, 영암 등 5개 시·군 29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총 44농가의 오리와 닭 65만 3300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셀링 ~ 21일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내 한 가금류 판매 업소의 셔터가 내려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와 동티모르 손잡고 민주주의 함께 지켜나가자”



DJ와 인연 일리디오 장관 5·18 묘역 참배

“광주와 동티모르는 많은 시민이 학살당한 비극적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광주와 동티모르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동티모르의 일리디오 쉬메네스 다 코스타 노동부 장관이 2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사진>

일리디오 장관 일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관 일행은 최초 희생자인 고 김경철씨의 묘지를 비롯해 제1묘역과 제2묘역, 행방불명자 묘역을 차례로 둘러본 뒤 추모관에서 40분 분량의 5·18

다큐멘타리를 감상했다.

일리디오 장관은 “광주와 동티모르는 비극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 역시 1991년 산타크루즈 대학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 일부를 최근에야 찾았다”며 “5·18 실종자를 찾는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약 1시간30분 동안 묘역 곳곳을 둘러본 장관은 “동티모르에도 5·18민주묘지와 같은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5·18 정신을 펴헤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이나 정권, 정치인이든 언제

가는 5·18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디오 장관은 이날 광주보훈병원과 주한 동티모르인의 진료사업 지원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서울로 향했다. 22일에는 이해전 전 총리와, 25일에는 이희호 여사와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일리디오 장관의 이빈 방한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동티모르 지원을 촉구하고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윤창현 광주시장과 만나 “2000년 사사나 구스마오 초대 대통령을 제1회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 준 인연을 잊지 않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0
해질녘 18:30

달출몰 14:01
달짐 14:01

일교차 개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7/29	보성	맑음	13/27
목포	맑음	18/27	순천	맑음	17/29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4/28
나주	맑음	15/29	진도	맑음	15/26
완도	맑음	17/27	전주	맑음	16/29
구례	맑음	14/29	군산	맑음	16/28
강진	맑음	15/28	남원	맑음	14/29
해남	맑음	13/28	흑산도	맑음	18/24
장성	맑음	14/28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
남부	면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면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면바다(서)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7:36 20:33	00:41 12:53
여수	02:20 15:49	08:28 22:32

주간 날씨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18/24	18/27	18/24	17/26	16/26	15/25	15/2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50
	빨래	90

한가위 맑음... 환한 보름달 본다

올해 추석(27일)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 추석 연휴 기간(26~29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25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차례 비가 오다가 26일 오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추석 당일 보름달이 오후 5시50분 뜨기 시작해 다음날 오전 6시11분에 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명절 교통사고, 귀성길 더 위험

서울→광주 평균 8시간 30분...귀경보다 사고 19% 많아

추석 귀성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해 느긋하게 운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귀경길(추석 뒷날)보다는 귀성길(추석 전날)이 소요시간이 3시간가량 더 걸리는 데다, 교통사고 위험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21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추석연휴 차량 운행시간과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귀성길이 귀경길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광주의 귀성길은 평균 8시간38분으로 귀경길 5시간 30분보다 3시간 이상 더 걸렸고, 서서울→목포의 귀성길은

10시간33분으로 귀경길(6시간28분)보다 4시간5분이 더 소요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12년, 2013년 추석연휴 기간 주요 도시간 소요 시간을 분석한 결과로, 출발 도시 톨게이트에서 도착 도시 톨게이트까지의 주행 시간이다.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교통사고도 잦았다. 귀성길이 귀경길과 비교해 사고 발생건수가 19.2%(3725건·3124건), 사망자수는 51.3%(115명·76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의 78.3%(115명 중 90명)는 졸음 운전, 급차로 변경,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호기자 khh@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대역 80m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속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만장
- 배수갑문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